

아침 해가 뜰 때

새찬 552장

- 1절 아침 해가 뜰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절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따라가며

새찬 449장

- 1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 5절 주를 힘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설 연휴 동안 고향(가족)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자기를 소망합니다.**

- 첫째 **사랑** 설 명절 가족과 이웃에게 안부를 나눕니다.
- 둘째 **마음** 설 선물을 부모님과 고향 교회에 나눕니다.
- 셋째 **소망**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 🔍 를 검색해 보세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6 설 가정 예배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6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
KOREAN CENTRAL BAPTIST CHURCH

설 가정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목 도 사회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4-5

찬 송 아침 해가 돋을 때(새찬 552장) 다함께

기 도 가족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오늘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혹여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낼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잠언 3:5-6 가족중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 씬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설교자

찬 송 예수 따라가며(새찬 449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예배 후에는 가족과 다과를 나누며 덕담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설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간의 문턱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설렘과 동시에 '올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경험과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대개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당장 눈앞의 이익은 볼 수 있어도, 그 끝이 생명인지 사망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은 나의 생각과 판단, 경험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명철보다 훨씬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나의 짧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시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즉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셋째,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성경은 또한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길을 곧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발 앞을 비추듯,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때로 빠르거나 때로 느리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그 방향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에 이동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길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가정이 주님만 따라갑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온 가족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